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3, 327 - 336

##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김 용 희<sup>†</sup>      반 건 호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공포증을 측정하는 도구인 동성애 공포척도(III)를 번안하여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II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의 경우,  $\alpha$ 계수가 .9를 넘어 양호하였다. 타당도 연구에서 요인타당도가 양호하였고,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공인타당도도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 공포정도와 성격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개방성 및 정신병적 경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동성애 공포, 신뢰도, 타당도, 개방성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적 관심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하는 바, 성적 선호도나 관심도 다양하다. 동성애는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정서적, 애정적, 사회적으로 애착관계를 갖고 성적인 매력이나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Crook & Bauer, 1996). 사실 개인의 성적 선호도라는 측면에서 동성애란 오랜 과거부터 있어왔으나,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에 관한 키제이 보고서 (1963)에 따르면 서양 남성 백명 중 4명은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성연애자이고, 13명은 적어도 3년 이상 동성연애를 하였고, 13명은 실제로 행동화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자의 약 삼분의 일 정도가 동성애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설현욱, 1996) 위의 언급대로라면 실제로 많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용희, (130-702)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정신과, 전화: (02) 958-8549, E-mail: yngkim9@hanmail.net

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성적 취향을 가진 셈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1980년대에 미국정신과학회는 동성애를 정신과적 진단분류에서 삭제하여 동성애는 더 이상 병이 아닌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고, 이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상가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고 동성애와 관련된 연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로 동성애와 관련된 태도나 혐오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 취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동성애와 관련된 영역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성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인의 성태도나 성행동을 연구하면서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거나(배성미, 2002),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정도이다(고연숙, 2001).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적고 흔치않은 취향으로 받아들이거나 더 나아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인 경우는 서구보다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높은 편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혐오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로 미국의 45%에 비해 한국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다(숨자리퍼콜팅, 2002).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동

성애자에 대한 태도연구(San Miguel & Millham, 1976)나 동성애 공포증(Lumby, 1976; Rowat & Schmitt, 2003)에 관한 내용이거나 동성애 공포증이 높은 사람들의 성격유형에 관한 것(Johnson, Brems, & Alford-Keaing, 1997; Cullen, Wright, & Alessandri, 2002)으로 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혐오감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동성애 공포증 척도가 먼저 개발된 이유는 일반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중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성애 공포증 또는 혐오증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정도의 강한 공포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이다(Donohue & Caselles, 1993).

실제로 동성애와 관련된 척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지 않은 편이며 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나 동성애 공포증 척도가 대부분인데 이 또한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는 전무한 실정이다(Kite & Deaux, 1986; Agnew, Thompson, Smith, Gramzow & Currey,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의 일환으로 Hudson과 Ricketts(1980)의 동성애 공포증척도(Index of homophobia)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여 척도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척도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측정도구로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나 공포 감정을 파악하고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와 성격 간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다(Cullen, Wright & Alessandri, 2002). 왜냐하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큰 편이지만 개인적인 선호도나 특성과의 관련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성격이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ullen, Wright 및 Alessandri(2002)는 MaCrae와 Costa(1985)의 Big Five 성격척도 중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경험에의 개방성과 동성애공포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개방성이 적은 사람일수록 동성애 공포증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격과 공포증 척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본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집단은 총 231명의 대학생이었다. K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연령은 평균 21.79세 (SD=2.34, 18세-31세)이며, 남자 124명, 여자 107명으로 성별,  $\chi^2(1, n=231)=.92$ 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측정 도구

####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Index of Homophobia: IH)

Hudson과 Ricketts(1980)의 Index of homophobia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척도 번안 및 문항 수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척도의 번역은 25개의 문항을 정신과 교수 1인, 임상심리학 박사 1인 및 미국에서 12년정도 거주한 의과대학생 1인이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각 문항이 동성애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적절한지를 임상경험이 15년 이상인 정신과 의사 1인이 검토하였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모든 문항이 동성애와 관련성이 적합할 때까지 계속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신과 의사 1인과 임상심리학 박사 1인이 동의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이다.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완전히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동성애공포증척도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성애자와 접촉하거나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감정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 for Homosexuality: AH)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와 다른 동성애 관련 척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와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 과정은 동성애 공포척도와 동일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항목은 완전히 그렇다(0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 합치도인  $\alpha$ 계수는 .90이었다.

### 동성애 공포행동척도(Homophobic Behavior Scale: HBS)

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공포척도를 다른 관련 척도와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어려워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Agnew, Thompson, Smith, Gramzow 및 Currey (1993)의 동성애공포행동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항목은 완전히 그렇다(0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동성애자와 대화하거나 접촉하게 될 때의 불쾌감이나 공포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alpha$ 계수는 .52로 나타났다.

### 아이젠크 한국판 성격차원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선행연구들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성격이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ullen, Wright & Alessandri, 2002).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성격척도와의 관련성 여부를 통해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PQ는 Eysenck의 성격차원검사(1975)를 한국판으로 이현수(1985)가 표준화한 것이다. 총 79문

항으로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그리고 허위성 등을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것이다. 신뢰도는 .66에서 .82이다(유희정, 1990).

### 개방성 척도(Openness Scale: OS)

Costa와 McCrae(1992)의 NEO 성격질문지 개정판의 한 하위척도인 개방성 척도만 뽑아서 개발한 것으로 성격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와 관련성을 보기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애순(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48문항이고 5점 척도로 신뢰도는 .68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IH)의 내적 합치도, 문항-총점간 상관, 요인구조 및 다른 관련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총 231명의 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IH)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동성애 공포척도 점수의 상위 30%를 동성애공포가 높은 사람(48명)으로, 하위 25%를 동성애 공포가 낮은 사람(36명)으로 분류하여 이들 중 모든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각 성격변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신뢰도**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alpha$  계수는 .94로 매우 높았다. 각 요인별 문항-총점간 상관을 살펴보면 .33에서 .77로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반분신뢰도계수는 .9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타당도**

변안된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IIH)의 내적 구

조를 파악하기 위해 25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축 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검사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2개가 추출되었다. 요인1은 고유치가 10.68(설명변량 42.75%), 요인2는 고유치가 1.78(설명변량 7.13%)이었다.

추출되는 요인수에 대한 준거(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본 척도의 원저자들(Hudson과 Ricketts, 1980)이 단일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1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개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이 때 문

표 1. 동성애 공포증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 인 요인 1
1.	동성애자인 남자동료와 가깝게 일할 때 편안하다.	.62
2.	동성애자가 있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70
3.	내 이웃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짢을 것이다.	.70
4.	나와 동성인 사람이 나에게 성적으로 다가온다면, 화가날 것이다.	.57
5.	나와 동성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편하게 느낄 것이다.	.53
6.	내가 게이바에서 있다가 발견된다면 불편해 할 것이다.	.62
7.	같은 성의 사람이 나에게 성적으로 다가오더라도 나는 편안할 것이다.	.50
8.	내가 같은 성의 사람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편안할 것이다.	.58
9.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74
10.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게 된다면 나는 신경이 곤두설 것이다.	.73
11.	내 직원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편안할 것이다.	.68
12.	나의 형제, 자매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면 실망할 것이다.	.75
13.	내 아이가 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67
14.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남자를 본다면 역겨울 것이다.	.67
15.	나와 같은 성의 사람이 성적으로 접근해 온다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78
16.	내 딸의 선생님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언짢게 느낄 것이다.	.77
17.	나의 배우자나 연인이 동성의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53
18.	모임에서 동성애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다면,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68
19.	직장 사장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69
20.	동성애자 구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	.57
21.	내 주치의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65
22.	나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59
24.	내 아들의 남자 선생님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67
25.	나는 여자 동성애자와 친밀하게 일하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45

항 23번의 요인부하량이 .28로 낮아서 이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1은 고유치가 11.02로서 전체변량의 46.13%를 설명하였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91이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결과( $p < .001$ )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30을 넘어 전통적인 기준(Nunnally, 1978)을 넘어 적절하였다.

###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IH)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나 공포정도를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성애와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척도(AH)와 동성애 공포 행동척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척도들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동성애공포척도(IH)와 동성애태도척도(AH)와는 .64( $p < .01$ ), 동성애공포행동척도(HBS)와는 .57( $p < .01$ ), 개방성척도(OS)와는  $-.20$ ( $p < .01$ )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집단 간 비교

동성애 공포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성격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신병적 경향이 높은 집단이 동성애 공포증이 더 높았으며 ( $t=4.16$ ,  $p < .05$ ), 개방성이 큰 집단이 동성애공포증이 더 낮았다( $t=4.03$ ,  $p < .05$ ).

표 2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IH)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

	IH	AH	HBS	평균	표준편차
IH				67.27	16.33
AH	.77**			41.59	12.72
HBS	.57**	.68**		20.11	4.90
OS	-.20**	-.25**	-.24**	162.16	17.43

$p < .01$ ; IH: Index of Homophobia; AH: Attitude for Homosexuality; HBS: Homophobic Behavior Scale; OS: Openness Scale

표 3 집단 별 성격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값

	동성애공포증 경향이 높은 집단 (N=48)		동성애공포증 경향이 낮은 집단 (N=36)		차이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27.76	4.38	27.30	4.58	.23
신경증적 경향성	30.31	4.02	29.22	3.39	1.76
정신병적 경향성	28.25	1.69	27.36	2.39	4.16*
개방성	158.64	15.74	167.37	24.35	4.03*

\*  $p < .05$

따라서 개방성이 큰 집단일수록 동성애 공포 경향이 적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동성애 공포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의

동성애는 여전히 낯설고 생경한 주제이며, 더 나아가 금기시되거나 불쾌감을 야기시키기 쉽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점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혐오감을 효율적으로 변별 진단하는 평가도구로 알려진 동성애 공포척도(Index of Homophobia: IH)의 한국판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Hudson과 Ricketts(1980)가 개발한 동성애 공포척도(Index of Homophobia)를 번안하여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하였다. 한국판동성애공포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Cronbach  $\alpha$ 계수가 높게 나와 높은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문항과 총점간 상관이나 반분신뢰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가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 결과, 2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본 척도의 원저자들(Hudson & Ricketts, 1980)이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여 본 연구에서도 1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46.13%를 설명하였다.

한국판 동성애공포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척도를 본 연구에서 번안한 점이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태도척도, Agnew 등(1996)의 동성애 공포행동척도와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표준화된 성격척도인 개방성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비교적 타당도가 적절하게 나타났다.

동성애 공포증과 성격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개방성이 동성애 공포증을 가장 잘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정신병적 경향성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격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높은 관련이 있었다(Cullen, Wright, & Alessandri, 2002; Johnson, Brems, & Alford-Keating, 1997). 즉, 개방성이 클수록 동성애 공포증은 낮은 편이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동성애 공포증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변인과의 관련성은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개방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졌다. Zhang과 Huang(2001)의 연구에서도 외향성과 창조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유형과 관련되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규범지향적이고 단순한 사고 유형과 관련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동성애 공포증이 낮은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신병적 경향성은 Eysenck의 EPQ(1975)에서 세 번째 차원으로 채택된 성격변인으로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나 그

친척들이 일반인에 비해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격성과 충동성의 하위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을 주로 연구한 Claridge(1972; 1983)에 따르면, 정신병적 경향성은 창조성이나 기이함, 광기(madness)와 같이 일반적인 정서와는 이탈된 면과 관련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하고 기이한 특성을 가진다고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동성에 공포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아마도 개방성 척도의 경우, 동성에 공포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간의 차이 점수가 실제로도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에는 동성에 공포증이 높고 낮은 경우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차이 점수가 작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 동성에 공포증에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연령 변인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본 결과를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동성애관련척도가 진무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성애 척도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IH)의 타당도를 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동성애 공포증 집단에 대한 연구나 동성애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고연숙 (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 (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성미 (2002).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현옥 (1996). 건강상식: 동성애. 한국논단 85권, 237-239.
- 숨자리피쿨딩 (2002).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 (1985). 성격차원검사요강(성인용).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희정 (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환자의 특성-정신병적 경향성과 반응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8).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 Agnew, C., Thompson, V., Smith, V., Gramzow, R. & Currey, D. (1993). Proximal and distal predictors of homophobia: Framing the Multivariate Roots of Outgroup Reje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2013-2042.
- Claridge, G. (1972). The schizophrenias as nervous typ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1, 1-17.
- Claridge, G., Robinson, D., & Birchall, P. (1983). Psychophysiological evidence of 'Psychoticism' in schizophrenics' relati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23, 34-41.
- Costa, P. Jr.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3, 6, 653-665.



- Costa, P. Jr. & McCrae, R. R. (1978). Objective personality assessment. In M. Storandt, I.C. Siegler & M.F. Elias (Eds.),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Plenum.
- Cullen, J., Wright, L., & Alessandri, M. (2002). The personality variable openness to experience as it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42, 4, 119-134.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75). *Manual of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Junior and adult)*. London: Hodder & Stoughton.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udson, W., & Rickett, W. A. (1980). A strategy for the measurement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5, 357-372.
- Johnson, M., Brems, C., & Alford-Keating, P. (1997). Personality correlates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 34, 1, 57-69.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ite, M. & Deaux, K. (1986).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ssessment and behavioral consequences. *Basic & Applied Social Psychology*, 7, 137-142.
- Lumby, M. E. (1976). Homophobia: The quest for a valid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3, 1-5.
- MacDonald, A. P. & Games, R. (1974). Som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hold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1, 2-7.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San Miguel, C. & Millham, J. (1976). The role of cognitive and situational variables in aggression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3, 10-12.
- Rowatt, W. C. & Schmitt, D. P. (2003). Associations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varieties of sexual experi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2, 3, 455-465.
- Zhang, L. & Huang, J. (2001). Thinking style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465-476.

논문접수일: 2005년 6월 13일

수정논문접수일: 2005년 9월 13일

게재결정일: 2005년 9월 19일

# An Investigation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Index of Homophobia

Yong Hee Kim      Geon Ho Bahn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Index of Homophobia, based on Hudson & Ricketts(1980)' Index of homophobia and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sisted 231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cale of Korean Homophobia had appropriate internal reliability. Second, factor analysis study of the Scale of Korean Homophobia confirmed that one factor model. Third, concurrent validity was significant with other Homophobic sale. And Openness and Psychoticism were significant correlated with homophobia.

*Keywords: Homophobia, Reliability, Validity, Openness*